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자유롭게 학교에서 수업, 비행기 타고, 쇼핑센터와 식당에 들어가고,....마스크는 완전 히 벗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아직도 마스크를 많이 끼고 다닙니다.

작년 말부터 주일과 명절이 겹쳐지는 새해를 기이하게 맞이하면서 새해 첫 주일 예배 후 벌써 봄과 함께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인니는 계속되는 우기철로 비가 오고 산천초목이 원래도 짙은 초록색인데, 요즘은 더 멋지고 싱그러운 자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귀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나, 최대 모슬렘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 23일부터 한 달간 금식 기간이 선포되어 진행 중입니다.

모슬렘들의 구원 조건 5기둥은 알라를 부르며, 하루 5번 ①기도하고, 지난 1년 동안의 죄를 씻기 위해 한 달간 ②금식을 하고, 금식 중 모은 돈으로 이웃을 위해 ③구제하고, ④성지순례(하지)을 해야하고, ⑤성전(거룩한 전쟁)에 참석해야 합니다.

금식 기간 중에는 식당마다 유리창에 커튼을 쳤고,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미안 해 하지 않게하기 위한 처세술입니다. 해 뜰 때(05:30)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인데, 오후 18:00에 식사를 개시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차려 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 되면 수저와 포크를 동시에 들어 올리는 소리가 장관입니다. 우~두~둑....

스티아 자카르타 신학교 사역

지난 1월에 오지 사역에 갔던 65명 신학생은 돌아오고, 2학년을 마친 후 오지 전도 실습 여행을 떠나기 전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였습니다. 건강과 현장 실습에서 지켜야 할 일들, 현장에서의 영성 관리, 전도의 실제...등.

문화가 다양한 학생들이 가는 곳은 습관과 관습 그리고 언어가 다른 곳입니다. 거의 선교사 수준으로 각오가 전도와 교육을 위해 결심하고 1년의 훈련을 위해 42명은 떠났습니다. 목회는 현장에서 선배들에게 배우고, 신학은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신학교는 372명과 교직원 36명은 여전히 열심히 사역 중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기독교 교육과 학생들에게 '영성 형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영성 강의는 역시 쉽지 않습니다.



서부 칼리만탄 스티아 응아방 신학교



요즘엔 한국도 신학교가 모집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곳 인도네시아도 경제가 좋아지면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응아방은 군 단위인데, 정부에서 기술 대학을 세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신학교 보다는 대학으로 많이 가는 상황으로 인해 많은 숫자의 신학생들이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중학교 80명, 고등학교 60명, 신학생 60명이 수업 중입니다.



은혜 유치원

정부에서 요구하는 허가 조건이 많이 까다로와 졌습니다. 1층 수업 방 내부 공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42명의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전반 아이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진주 초등학교

건물에 여기저기 수리를 해서 84명 아이들이 공부 중입니다. 학교 허가를 수속 중인데 아직도 허락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은혜 유치원과 진주 초등학교 위치는 매우 열악한 곳입니다. 부모들은 가난한 중국인과 타지 각 섬에서 자카르타로 이사 온 원주민 자녀들입니다. 자카르타 공항 근처이고, 쓰레기 하치 장이라 쓰레기가 몇 개의 산처럼 쌓여 있어서 날씨와 바람에 따라 악취가 나고, 학교 주변은 공동묘지로 둘러싸여 있고, 예전에 한센씨병 환자촌이어서 병원과 병에서 나온 원주민들이 살고있는 지역입니다. 학비가 싸기 때문에 가난한 부모들이 아이들을 기독교 학교에 보내고, 졸업생들은 상급학교에 올라가서 좋은 성적으로 입학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서부 칼리만탄 폰티아낙 스티아 학교

사진 모습과 같이 학교 건축 중 모습입니다. 2층까지 올렸고, 각 방 공사 중입니다. 건축 허가증이 나온다고 하면서 아직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유치 42명, 초등 107명, 중학교 168명, 고등학교 17명, 성경신학교 7명, 교사 24명, 신학 강사 5명입니다.



멀리 보이는 붉은색 2층 건물이 현 학교이고, 파란 지붕이 교회 건물입니다. 도시이다 보니 넘치는 학생들 때문에 교실과 기숙사가 절실히 필요해서 이 대단한 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오지 마을에 교회를 세워서 헌당하였습니다.

지난 2월6-10일까지 서부 칼리만탄 교회 헌당식이 있었습니다.

Bikaye, Bagan, Bacang 마을에 헌당예배 드렸습니다. 우기철에 헌당식이 있었는데, 날씨가 협조해 주어서 무탈하게 헌당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교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마을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임하심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한국에서 헌당식에 참여한 초등학교생들의 동참하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4륜구동 지프차 짐칸에 타고 엉덩이가 아플텐데, 꼭 참고가는 모습이 다음 세대에 소망을 갖게했습니다.



인니 오지 마을에 헌당을 기다리는 교회는 11개 마을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술라웨시 신학교 건축 중에 있습니다.

오지교회 사역자들의 헌신과 수고

일신교회에서 사역자들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동역하는 인니 교단 사역자들이 오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실습생 교육과 각 곳에서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티아 신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열어주어 105명이 대학원 과정을 비대면과 대면으로 수업 중에 있습니다.

3월 한 달은 대면 수업이라 오랜만에 자카르타 본교에 와서 친구들도 만나고 정보도 교환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역자: 서부 칼리만탄 신 땅 지역에서 일하는 갈렘 목사, 빅크람 목사, 오디아나 전도사입니다.

인니 자카르타에 있는 오래된 교회 방문



☞ 1695년 포르투갈이 세운 시온교회 외부와 내부 강대상 모습이고, 이곳에서 올해 4월 9일 인도네시아 한인교회 부활절 연합 비대면 예배 축도를 위해 제가 녹화 중입니다.

저는 인니 선교사회 교회성장 분과장 역할을 하는 중에 3월 초에 인니 선교사들과 함께 국가 보물 지정 인니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예배타, 임마누엘 (위 3장 사진) 제일 오래된 교회는 (종 답이 있는) 1695년된 시온 교회입니다. 강대상이 아주 흥미로운데, 인도 힌두교인이 디자인 하였다고 하고, 포르투갈이 시작하여 네덜란드에 넘겼고, 다시 인니 국가로 넘겼고, 인니 정부는 인니 교회 교단으로 넘겼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예배는 드리지만, 낡은 건물을 함부로 수리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 소식들....



서티모르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안에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유치원도 작게 건축했는데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코로나 때문에 막혔던 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선교사들의 만남과 지역 방문과 해외 손님들 방문이 많았습니다.

인니는 이제 경기에 활기가 넘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열방교회 집회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세대 교체는?

코로나 때에 전 세계 선교사들 가운데 82명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행 하였고,

요즘 들어오는 신입 선교사들이 젊은이 보다는 은퇴 후 마지막 생애 헌신 하겠다는 황금기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이제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게 됩니다.

종말의 징조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 때에, 오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전도와 선교를 하면 살고자 합니다.

요즘은 습관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 정말로 예수 믿습니까?’ 질문과 스스로 ‘예’라고 답을 합니다.

선교의 동역자분들도 영혼과 육이 강건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평주승!

이천이십삼년삼월끝자락 날
인도네시아에서
다예 송광옥 선교사 드림.

자연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동물들 모습입니다!

